

# 오피니언

## 월/요/광/장

### 전지용



19세기 중국 황제들은 유럽 열강들의 사신을 접견할 때 사신들에게 궁정의 끝자락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는 큰절을 하도록 강요했다. '중화'에 집착해 온 중국이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그 한 세기 전쯤 조선의 박지원이 감탄했던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중국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후 중국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역사는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중국은 최근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되찾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와 대등한 '동양'을 설정했고 그 한쪽 중심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있다. 마치못해 받아들인 중국식 다원론은 제한적인 것이고 과거보다 좀 더 작은 세계의 주인 노릇을 자임하고 있다. 20세기 초 일본이 '대동아'의 중심 역할을 내세우면서 강변했던 제국주의적 관념과 지금 중국의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우리의 공중과 방송선 고구려 관련 드라마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전 '라이파이'란 인기만화의 작가로 알려진 김산호의 그림들이 광주에서도

전시되고 있다. 그림은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 정서적인 우리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한 중국인 학자는 중국이 더 이상 영토적 욕망을 갖고 있지 않다가 동북공정을

## 중국의 '동북공정'이 주는 교훈

해명했다. 언젠가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수세적 준비작업을 벌이려는 것이다. 한국의 통일을 전제 한 뒤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어떤 변화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우리가 이 표현을 인정한다면 중국 정부의 정책이 더 이상 이익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래에 나타날 어떤 변화 전개를 가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힘의 균형을 감안하면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을 입에 담을 처지가 아님 명백하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자국의 소수민족에 대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관공 정책은 중국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의 중국 영토는, 그들이 이민족의 국가라고 여겼던, 과거 청 나라에서 물려 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은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 '서북공정' '서남공정' '동북공정'을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서남공정과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가 집요하게 관찰시키려는 주요 정책이고 그 지역은 중국화의 성과가 비교적 지지부진한 곳이다.

중국 상인들이 먼저 진출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티베트와는 달리 동북지역에서 어떤 형태든 독립운동이 있었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한국인들이 반란을 부추기는 일도 없다. 중국과 한국의 힘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있을 법한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정황을 생각한다면, 이탈리아의 통일운동 과정에 이룩한 프랑스가 당시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에 있던 사르디니아 왕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준 대가로 사보이와 니스 지역을 획득하게 되었던 역사를 상기하게 되는 것이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가 한국의 분단 상태를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의심과도 통한다.

중국이 단순히 수세적 목적으로 동북공정을 시작했을까? 결과는 부정적이다. 역사는 이웃이 강해지는 것을 환영하는 주변국들은 없고, 그것이 불가피하면 상황에 따라 다른 대가를 얻고자 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동북공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통일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성급하고 정서적인 통일운동이 주변국들을 자극해 이용당했다는 것이다.

〈조선대학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정부, 서민가계 붕괴되는데 손 놓을 건가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이 빚과 세금, 급여와 공과금이 연달아 집중에 있고 학원비 등 사교육비와 공공요금도 잇달아 올라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의 주름살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은 가계 빚 때문에 과산하는 가정이 크게 증가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광주지법에 소비자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11월 기준으로 6천937건에 달해 2년 전에 비해 무려 27배나 폭증했고 지난해보다는 6.8배 늘었다. 광주·전남 가계대출도 10월말 현재 9조3천750억원으로 2년 사이 16.5% 증가했다. 가구당 74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고용사정도 악화되고 있다. 실업률은 광주 4.2%, 전남 1.7%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청년층 실업률이 10%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만3천여명이나 줄어들어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했다.

중합부동산세와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연달아 집중되고 있고 학원비 등 사교육비와 공공요금도 잇달아 올라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의 주름살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서민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등 정치권은 정정하고 내년도 예산안마저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서민경제가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무너져가는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몰두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은 지방의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은행권의 잇단 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이자폭탄'을 맞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서민들이 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군 복무기간 단축 신중히 접근해야

청와대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내린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군대에 가서 땀 흘려 싸워주고" 등을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1일 민주평통 발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야당 등에선 복무기간 단축을 '대선용'으로 평가하며 경계하고 나섰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썩는다'고 표현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국군통수권자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청와대가 복무기간 단축을 선언하고 나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군 복무기간은 여건만 허락되면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기왕성한 젊은이들이 학업이나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군대에서 장기간 복무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일 수 있다. 복무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썩고 있다'는 푸념을 하며 불평을 쏟아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병역자원의 수급이 여의치 않

하는데 문제가 있다. 병무청의 병역자원 수급동향에 따르면 병역자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지만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2020년까지 6만명 수준의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예정으로 있어 출산율이 저하 등을 감안하면 병역자원의 수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도 부담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집값대상자와 가족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메리트 카드가 될 수 있다. 야당이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는 대선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논란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복무기간은 국방정책의 핵심사안이다. 정부는 논란이 뜨거운 만큼 복무기간 단축을 서두르기보다는 병역자원 수급 계획과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 無等鼓

에브리썸 링컨처럼 대중의 미움을 많이 받았던 대통령도 없었다. 그가 1860년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미국은 노예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었다. 선거 결과는 이를 반영했다. 노예해방론자 링컨이 남부에서 얻은 표는 단 2만4천표(당시 남부 인구는 백만만 550만명). 링컨의 당선으로 신생국 미국은 두 조각 났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큰 키에 기형적으로 긴 팔, 촌티는 태도는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언론은 그를 '독재자, 폭군, 괴물, 괴질러, 원숭이, 반역자, 얼

리, 미치광이'로 마냥 조롱했다. 뉴욕의 한 신문은 링컨을 '가즈스럽고 추하고 어비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링컨은 동물학적으로 볼 때 너무 진기하므로 그를 전시해야 한다'고 막말을 했다. 링컨의 위대함은 이런 비판과 독설을 포용하고 관용으로 극복한 데 있다. 포용은 자신보다 뛰어난 인재들을 기용하는

인사정책에도 반영됐다. 그는 대통령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윌리엄 슈어더를 국무장관에 앉았다. 평생 정적인 스티븐 더글러스와는 국가 위기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그의 정치는 내전이 끝난 뒤 더욱 돋보였다. 그는 남부 정부와 남부군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 링컨이 암살됐을 때 남부 정부의 대통령을 지낸 제퍼

슨 데이비스는 "전쟁의 패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링컨의 죽음"이라고 슬퍼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1일 민주평통 발언이 파문을 던지고 있다. 그 중에서 링컨과 관련된 부분이 흥미를 끈다. 노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의 포용인사 간, 미치광이'로 마냥 조롱했다. 뉴욕의 한 신문은 링컨을 '가즈스럽고 추하고 어비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링컨은 동물학적으로 볼 때 너무 진기하므로 그를 전시해야 한다'고 막말을 했다. 링컨의 위대함은 이런 비판과 독설을 포용하고 관용으로 극복한 데 있다. 포용은 자신보다 뛰어난 인재들을 기용하는

와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 저자는 육면이 어 먹고 사니가 힘들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링컨 존경은 유명하다. 사실 노 대통령과 링컨의 인성은 닮은 점이 많다. 그러나 링컨이 관용과 포용으로 내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한 사실은 잊은 듯 하다.

/오주승 정치부장 js@kwangju.co.kr



링컨과 노무현

## 법조 칼럼

### 이경희



필자는 올해 처음으로 2천만원 이하의 금전청구 사건을 다루는 민사 소액재판장을 맡게 됐습니다.

소액사건은 10~20만원의 청구하는 사건에서부터 200~300만원을 청구하는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서민들의 소송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도 사람인지라 어떤 당사자들은 예뻐 보이기도 하고, 어떤 당사자들은 알아뵈서 딱 한 조각도 주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너무 심각하게 읽지는 말아주길 바랍니다. 흥분해 힘든 2006년이 가는 마당에 법정에서 사람

상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당사자들이 예뻐 보일 때는 ▲소가 제기된 이후에 서로 연락해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한 후 법정에서 나온 당사자 ▲자신의 책임을 순순히 인정하며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법정까지 오게 된 것을 사과하는 당사자들입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며 조정을 제시하였을 때, 비록 조정안을 담석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양보의 뜻을 비추는 당사자들은 정말 예뻐 보입니다.

### 원·피고가 예뻐 보일 때와 미워 보일 때

들 괜히 기죽이는 거꾸쪽향 법복 입은 사람들도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쁘다고 줄 껌도 없고, 그러니 미쁘다고 안줄 껌도 없을 뿐 아니라, 그리 속 좁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도 않거든요.

제목에 나왔던 순서와는 달리 미워 보이는 당사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양보만을 주장하며 전혀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당사자 ▲상대방이 양보할 때마다 말을 계속 바꾸는 당사자들입니다.

또한, 최근 구술변론이 강조되고 있는데 구술변론을 핑계로 소장부분이나 상대방의 준비서류를 받아보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가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지엄할단적인 인신공격적 진술만을 계속하는 당사자들이 가장 미워 보입니다.

아마도 그런 법정에서 뿐 아니라 일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니, 정말 예뻐 보이는 당사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지만 위에서 나열한 미워 보이는 당사자들과 예뻐 보이는 당사자들을 종합하면, 대충 필자가 좋아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짐작이 가시죠?

결국, 뭘 하니 해도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당사자들은 법원까지 오지 않은, 오지 않은 잠재적 당사자들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상대방과 대화가 잘 안되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웬만하면 서로 상대와 잘 타협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예뻐 보이더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주변 사람과 닮아 생긴다면 다시 한 번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주시고 서로에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일은 피하십시오.

다가오는 2007년은 닮아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광주지법 판사〉

### 운전면허, 충분한 기능 연마후 발급 했으면

일부 운전면허 학원에서 수능시험이 끝난 고 3 수험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수강료도 기존 학원보다 훨씬 싸 경쟁이 치열하다거나 짧게는 일주일 만에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학원들도 있다.

학원들이 충분한 기간의 준비와 숙련도를 거치지 않고 속성으로 마치 출동구해 하듯 운송계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부추겨서는 곤란하다. 운전면허증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안전 지킴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짧은 기간에 겸 한동안 구입하듯 따내는 것은 자신은 물론 수많은 다른 이들의 하나뿐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성해·광주시 서구 벽진동

## 기고

### 박영환



2007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입시전문기관들이 앞다투어 대학별 합격 예상점수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별로 전형요소나 점수 반영방법이 각각 달라서 입시전문가나 입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입학전형제도나 관련 용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광주지역 대학의 합격 예상점수를 대학별 전형방법에 따른 산출점

력을 높이기 위해 영역별 취득 최고점수를 만점으로 변환시키는 점수를 말하며, 공식적으로 2005학년도부터 수능성적 통지서에 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전형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표준점수를 변환하여 변환표준점수로 사용하고 있다. 표준점수를 변환표준점수로 전환할 경우 영역에 따라 같은 학생의 점수가 최고 70점가량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표준점수를 사용하느냐 변

### 혼란스런 대학 합격 예상점수

수 기준으로 보도된 기사를 보고 수험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에 대한 질문이 많아 진학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표준점수란 과목의 난이도 차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수험생 개개인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한 점수다.

표준점수의 범위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은 200점, 탐구과목은 1개 과목당 0점부터 50점이며 4개 과목 합이 200점으로 표준점수의 총합은 800점이 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3개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50점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변환표준점수란 표준점수의 변별

표준점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동일한 표준점수를 사용하더라도 대학의 전형방법에 따라 합격 예상 점수는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각 대학별로 다른 수능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점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학 홈페이지에서 변환표준점수를 산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내 점수로 합격가능한 학과가 어디인가 일목요연하게 비교해보고 싶다면,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점수를 사용해야만 정확한 정보를 얻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대부고 교사〉

### 보험사, 대출 세일 보다 고객 서비스 신경써야

모 보험회사로부터 "귀하는 몇 %의 금리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는 안내장을 받았다.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시점에서 대출을 하라고 은근히 강요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

처음 사용할 때는 달콤할지는 몰라도 분명 얼마 못가 대출금 상환요구가 이어질 것이며 만약 대출금 상환을 못할 경우 쫓겨야 연체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보험 회사들은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에게 안내장을 보냈게 아니라 그 비용으로 정말 꼭 필요한 고객을 위한 수신자 부담 고객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쫓아야 할 때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야동

### ◇ 채택된 원고는 고로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로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禿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시 광산구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국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서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립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